

## ● 振興컬럼

# 미니텔로 비디오텍스 先進國이 되자



金 貞 欽  
高麗大 教授 / 理博

## 電話는 있어도 電話番號簿가 없는 共產國

共產國家에는 電話機는 있어도 民間大衆이 쓰는 電話番號簿는 없다고 한다. 예컨대 人口 900萬名이 넘는 모스크바가 그렇다. 電話란 서로 電話番號를 아는 사이에서만 活用할 것이지 不必要하게 電話番號簿를 들추어 가면서 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強辯이자 哲學이다. 아닌게 아니라 電話番號簿가 萬一 發行이라도 된다면 얼마안가 그 共產國家는 内部로부터 崩壞가 될 것이 틀림없다. 情報統制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東歐 여러나라가 허물어져가는 理由도 서로 西方側과 隣接해 있어 情報交換이 무척이나 수월해져 情報統制가 不可能해졌기 때문이다.

## 舊態依然한 우리의 電話番號簿

우리나라의 電話施設數는 1990年 7月 1日 現在로 1,484萬 回線으로서 人口 100名當 29.2

回線이고 自動化率은 100%이다. 1970年 當時의 64萬 回線(對人口比 1.7%)에 市外電話 自動化率 0에 比하면 엄청난 變化이다.

1,484萬 回線이라면 家口當 약 1.4臺 꼴이 된다. 20年前만 해도 電話所有가 하나의 스테이더스 심볼(Status Symbol, 身分을 象徵해 주는 돌보이는 存在物)이었던 것이 지금은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日常用品의 하나로 生活化 되어 있다. 이제 電話는 없어서는 아니 될 生活必須品의 하나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20年 사이에 回線數로 따져 23倍, 對人口比로 따져 17倍가 되었는데도 變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것은 電話番號檢索의 方法이다. 예컨대 電話番號簿의 內容이나 樣式은 몇 10年前 그대로이다.

물론 그 電話番號簿는 電話回線數에 비례해서 두터워지긴 했다. 예컨대 서울特別市の 電話番號簿는 4卷을 숨쳐 두께가 20cm도 넘는다. 그러나 그 內容, 즉 電話番號의 羅列 方法이나 記載內容은 千篇一律의으로 옛날과 같다.

예컨대 「이순자」나 「김정희」氏의 電話番號를 알아내려고 電話番號簿를 펼쳐보면 아찔해진다. 數百名의 同名異人이 羅列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住所가 써 있긴 하다. 그러나 그 住所欄을 더듬어보면 「이순자」氏는 신림동에만도 36명이 나 된다. 이 36名의 「이순자」氏中 과연 누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순자氏일까?

물론 番地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番地數가 무슨 所用이 있는가 말이다. 地上에 自己 住所를 除外하고, 남의 집 住所의 番地數까지 記憶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리고 남의 집 住所의 番地數까지 記憶할 정도라면 그 집 電話番號쯤은 의당히 記憶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關係當局에 要請하여, 電話番號簿에 番地數代身(洞名은 남겨두고라도) 職業欄을 設定해 달라고 몇차례 요청했던바 그렇게 되면 加入者가 個人의 身分露出을 꺼리는 性向이 있어 困難하다.

그렇다면 番地數는 왜 적어놓았을까? 番地數를 적어놓으면 身分露出은 둘째치고도 그 집의

位置까지 알려지게 되어 盜賊들에게는 絶好의 目標物이 될 것이다. 그까지 身分쯤은 그 집에 電話를 걸어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 (電話에 어린이나 老人이 나왔을 때 쉽게 물어볼 수 있다).

또 身分露出을 꺼리는 사람은 아예 電話番號簿에서 이름을 빼거나, 職業欄을 空白으로 남겨달라고 要請만하면 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니 電話番號簿의 職業欄設置는 아무래도 그 龐大한 고쳐쓰기作業(모든 番地數를 일일이 지우고 그 代身 職業을 調査해서 새로히 記入한다는 것은 엄청난 作業이다)과 費用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미니텔 登場의 理由

外國의 경우는 어떤가? 日本의 경우는 이미 30餘年前 또는 그 이전부터 職業欄을 明記하고 있다. 예컨대 筆者는 그 덕에 30年前 美國 留學길에서 돌아올 때 손쉽게 日本 東京에서 中學卒業(解放되던 해)後 15年이나 헤여졌던 中學同窓을 찾아서 즐거운 會遇를 할 수가 있었다. 즉 洗濯業·小賣業·銀行員……등등中에서 손쉽게 銀行員인 그를 찾아 電話를 걸 수 있었다(공교롭게도 그의 이름은 日本에서는 흔한 木材生이여서 同名異인이 10餘명이나 있었다).

물론 모든 나라 電話番號簿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日本式처럼 職業欄 또는 其他의 欄(예컨대 洞名등)이 設定되어 있으면 電話番號簿檢索은 손쉬운 作業이 된다는 것 뿐이다. 그리고 손쉽게 누구나 알고자하는 相對方 電話番號를 檢索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電話番號簿 作業의 目的이기도 하다. 물론 本人이 希望치 않으면 職業欄은 空欄으로 남겨두면 된다. 아닌게 아니라 그 日本電話番號簿에도 空欄은 많이 있었다.

共産國家처럼 國民들 相互間의 電話會話を 陰으로 陽으로 封鎖하는 나라라면 모르되, 民主國家에서의 電話番號簿는 될수록 檢索이 容易하도록 만드는 것이 大原則이다. 물론 一部 有名人士들의 경우처럼 身分노출을 꺼려 일부로 電

話番號簿에 이름을 내기를 두려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秘密維持를 도와주어야 할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어떤가? 프랑스에서는 電氣通信總局이 1984년부터 비디오텍스(Videotex) 端末機의 일종인 簡易型의 端末機인 미니텔(Mini Tel)을 一種의 電子電話簿로 쓰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全國 家庭에 年次的으로 無料로 配給하여 昨年末 현재로 이미 약 400萬臺以上을 普及시키는 成果를 올리고 있다.

이 端末機 미니텔을 쓰면 프랑스內의 어느 사람의 電話番號도 손쉽게 檢索해 낼 수가 있다. 즉 미니텔에 달려있는 鍵盤을 눌러 찾고자하는 사람의 이름, 都市名·洞名·職業 등등을 차례로 눌러주면 數많은 同名異人中에서도 손쉽게 目的하는 사람의 電話番號만을 찾아낼 수 있게 해 준다. 그 결과 每年같이 새로 發行해야할 두터운 電話番號簿를 만들지 않아도 되어 費用節減도 되고 物資節約도 된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20cm두께도 더 되는 電話番號簿를 每年 수백만부씩이나 찍어내려면 그 用紙代와 印刷費만도 年間 500億~1,000億원은 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을 미니텔과 같은 같은 값싼 端末機로 代替한다면 4~5年間に 本錢을 뽑고도 남게 될것이 예상된다.

### 미니텔普及으로 情報最先進國이 된 프랑스

더군다나 이 미니텔은 簡易型 端末機라고는 하지만, 훌륭하게 비디오텍스(Videotex) 端末機로서의 任務도 다 하고 있다.

비디오텍스란 Video Telephone Exchange 의 略字로서 집에있는 電話端末機를 비디오텍스를 管轄하는 비디오텍스社 中央 大型컴퓨터에 連結시킴으로서, 中央 大型컴퓨터가 記憶시켜둔 갖가지 情報를 손쉽게 檢索해내서 TV의 브라운관 또는 미니텔과 같은 端末機表示板에 비추어 보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 비디오텍스를 쓰면 一般大衆은 自己집 안방에 앉은채 단추 몇 개의 조작으로 뉴스·日氣·旅行·健康·興行에 關한 情報를 얻을 수 있

고 또 홈쇼핑·텔레뱅킹(電子銀行, 홈뱅킹이라고도 함) 등등도 조작할 수 있어 未來 情報化 社會에서 가장 重要한 生活用品(情報媒體)의 하나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이 미니텔(더 正規的인 비디오텍스인 텔레텔(Teletel)도 運營. 단 正規的 Teletel 端末機는 비싸기도 하거니와 有料)端末機를 有料가 아니라 공짜로 無料提供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抵抗感 없이 使用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 사람들은 미니텔로 電話番號를 檢索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日氣, 株式現況, 興行, 旅行 등등 갖가지 生活情報를 언제나 마음내키는대로 얻을 수 있고, 또 안방에 앉아 劇場票나 列車票 또는 飛行機票도 예약할 수 있어 一大 人氣이다.

또 이 미니텔은 PC通信으로서도 쓰일 수 있게 되어 있어, 멀리 있는 親舊와 챗팅(Chatting) 즉 端末機단추로 文章을 써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談話(Chat)도 할 수 있고 또 電子共同揭示板(Bulletin Board Service BBS) 등을 써서 여러 會員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 BBS를 쓰면 어떤 定해진 會員(누구나 加入 可能) 들끼리 누구나 언제든지 알리고 싶은 글이나 廣告하고 싶은 文章을 揭示(大型컴퓨터에 記憶시켜 둔다는 뜻) 해두었다가 會員들이 定해진 暗號번호만 누르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그 결과 商品廣告도 할 수 있고, 골동품이나 中古品 賣買 또는 交換 등에도 쓰이는 用途가 많다. (이 方法으로 結婚까지 한 사람도 있다).

### 비디오텍스 普及은 미니텔方式으로

비디오텍스는 元來가 英國에서 1979년에 프레스텔(Prestel←Press Telephone)이란 名稱으로 시작되었고, 곧이어 캐나다에서 Telidom, (Tele는 遠方, Idom은 나는 안다는 뜻) 프랑스에서 Teletel, 日本서 CAPTAIN(Character And Pattern Telephone Access Information Network의 略字) (1984)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端末機가 비쌌고, 또 1畫面을 表示하

는데 걸리는 應答 所要時間이 意外로 길어서 英·加·日 등 각 나라에서는 각각 數萬~30萬 名 정도의 低調한 普及率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프랑스의 미니텔(簡易端末機)만이 400萬臺라는 놀라운 普及率을 보이면서 널리 쓰이게 되고 또 人氣를 끌고 있는 것은

(1) 端末機 無料供給

(2) 簡易端末機이긴 하지만 웬만한 生活情報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點

등이 그 理由인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비디오텍스(千里眼 I 과 II 가 있음)를 普及시키려면, 電氣通信公社가 果敢하게 勇斷을 내려 프랑스의 미니텔 모양 端末機를 無料供給하는 政策을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더구나 이 無料供給 端末機는 端末機만 無料이고, 使用時의 電話料金은 물도록 되어 있다.

또 業者中 情報供給者(IP=Information Provider)로 부터는 廣告費도 받을 수가 있어 긴 눈으로 볼 때 電氣通信公社는 數年內로 端末機에 들어간 本錢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400萬臺 以上이나 端末機가 普及된 現在, 미니텔로 因한 各種 料金收入은 보통의 電話料金에 正敵할 程度라고 한다.

現在로서는 비디오텍스는 端末機의 비싼 값이라던가 느린 應答時間이라는 技術上的 問題로 프랑스를 除外하고는 여러 나라에서 苦戰을 치르고 있지만, 앞으로 ISDN(綜合情報通信網,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現在 우리 나라에서도 進行中)이 完成되고 活用되는 時代가 되면, 畫面表示 應答時間(Response Hour)도 많이 빨라지게 되어 大大的인 利用이 이루어지리라 예상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니텔과 비슷한 簡易型 端末機를 無料提供하는 등의 方法을 導入해서 프랑스처럼 재빠른 普及을 통해 비디오텍스 先進國을 이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에 隨伴해서 여러 IP(情報提供者)들도 經驗을 쌓아 다가올 未來社會의 ISDN 時代에 對備해야만 된다고 생각된다.